

# ‘외눈박이’ 책임기에 대한 유감

고길철 | 언어연구가

우리는 늘 ‘좋은 책’에 매혹을 느낀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다 좋은 책’이란 그렇게 흔한 게 아니다. 특히 이데올로기가 개입할 경우는 ‘좋은 책’과 ‘나쁜 책’으로 확연히 갈라진다. 그러나 책 속에 스며 있는 이데올로기는 꼭 노골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일종의 ‘보이지 않는 손’ 같아서 독자들은 지혜롭게 판단하지 못하고 어떤 책이 ‘필독서’ 혹은 ‘베스트셀러’ 목록에 오르면 읽어서 어떤 교양을 얻어야 하는 것으로 동화(同化)되는 경우가 있다.

헌팅턴의 《문명의 충돌》이 그런 류의 책이 아닌가 한다. 다수의 독자들에게 그 책은 새로운 ‘문명 패러다임’을 제공해 민족적 ‘생존의 길’을 모색해주는 유익한 지침서로 읽힐 것이다. 어느 일간지는 헌팅턴을 ‘세계의 석학’으로 소개하면서 크게 보도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 사회에도 어느 정도 알려진 인물이고, 그의 책도 많이 팔린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그의 사상과 저서가 ‘훌륭하다’고만 소개됐지 비판된 적은 거의 없다.

그의 책은 사실 우리의 입장에서 매우 위험하다. 《문명의 충돌》은 다양한 문명들의 헤게모니적 도전을 인정하는 듯하면서도 그 새로운 질서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정부에 고하는, 21세기형 미국의 세계지배 전략지침서이기 때문이다. 이런 성격은 그 책의 거의 말미에 가면 명시적으로 나타난다. 굳이 지식인적인 ‘정후적 독해’를 하지 않아도 금방 알아챌 수 있다. 그런데 이런 핵심은 묻어버린 채 제국주의적 전략가를 ‘세계의 석학’ 운운하면서 ‘받들어 모시는’ 우리의 언론들은 참

으로 배알도 없는 모양이다.

또 다른 책을 예로 들자면, 빌 게이츠의 《미래로 가는 길》이다. 이런 책은 베스트셀러가 될 수밖에 없다. 인터넷 시대를 주도하며 세계를 제패하는 게이츠의 비결과 아이디어는 당연히 관심을 끌 어 모을 테니 말이다. 이 책은 게이츠의 해박한 지식과 탄탄한 문장력을 바탕으로 정보화사회의 정치경제학적 사상을 설득력 있게 진술하고 있다. 하지만 이 책 역시 《문명의 충돌》만큼 비판적으로 읽어야 할 책이다. 게이츠 자신의 신자유주의 정치경제학을 합리화하는 이미지 전략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어떤 종류의 책이든 출판할 자유는 분명 보장해야 한다. 선택과 판단은 독서대중들의 자유로운 몫이다. 하지만 대중들이 다수적 논리 혹은 지배적 논리와 공모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더군다나 신자유주의가 지배하는 이 생존위기의 사회에서 상품화와 화폐화의 욕망을 좇는 것은 절대적 진리가 되고 있다. 따라서 좀더 깨어있거나 ‘글쓰기 권력’을 쥐고 있는 지식인들과 비평가들이 대중적으로는 베스트셀러이되 ‘나쁜’ 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비판을 가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는 ‘좋은 책’ 뿐 아니라 ‘나쁜 책’도 읽는 자유와 여유를 가져야 한다. 외눈박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이 구별법이 절대적일 필요도 없다. 각자의 취향과 의미, 현실적 이해, 이데올로기 등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갖가지 혼합들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감각들, 창의적 감각들을 발견하고 발명해내는 것이 필요하다. 그 어지러운 혼합들 속에서 독자대중들은 더 지혜로워질 자유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 독자대중들을 외눈박이로 만드는 ‘문맹제조자’들과 싸워야 한다.

통권 제264호 | 1999년 9월 5일 발행

발행인 김낙준

편집이사 임홍주

편집자문 김정란 이정우 임지현

편집장 김지원

기자 오원진 박천홍

이현주 김연수

사진 한준호

편집디자인 정병규디자인 · 서정희

출판저널 · 박은정

업무부장 윤동호

업무 · 광고 이희천 김동필 천창환

등록 1987년 6월 9일 - 4 435

발행처 (재)한국출판금고

732-1434 · 5

인쇄처 평화당인쇄주식회사

이일수

출판저널 110 - 190

서울 종로구 사간동 105 - 2

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732 - 1431 · 2 | 편집

732 - 1433 | 업무 · 정기구독문의

FAX 722 - 1174

E-mail book732@chollian.net

하이텔 chulpan

천리안 book732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

윤리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정기구독 안내

매월 5일과 20일자로 발간되는 《출판저널》은

정기구독으로 받아 보시는 것이

빠르고 편합니다.

본사의 지로용지로 1년치 구독료 40,000원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짜의 해당호부터 택이나

사무실로 우송해드립니다. 본사의 지로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 · 수협 · 축협

포함)의 A지로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669의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하여 불인하거나

국민은행 계좌번호 023 - 01 - 0219 - 936

(예금주:출판저널)을 이용하십시오.

공급 | 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 - 6

716 - 5616~9, 716 - 5621~3